

대학 수학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경제 분야 외래어
학술 전문어휘 선정에 관한 연구*

김주연**

|| 차례 ||

- I. 들어가는 말
- II.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 1. 선행연구
 - 2. 이론적 배경
- III. 학술 전문어휘의 개념과 외래어
- IV. 학술 전문어휘 학습 현황 조사
- V. 학술 전문어휘 선정 및 북한 대응어
 - 1. 학술 전문어휘 선정 방법
 - 2. 어휘 목록과 북한 대응어 및 뜻풀이
- VI. 나가는 말

【국문초록】

본고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 대학에서 수학할 때 필수적으로 익혀야할 경제 분야의 학술 전문어휘 가운데 외래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학문 목적 북한이탈주민이 대학 수학 중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 중의 하나인 전공 관련 학술 전문어휘 가운데 외래어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의 재원으로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연세대학교 대학원

우선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문 목적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전공 분야의 학술 전문어휘 학습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경제 분야의 학술 전문어휘 가운데 주요 외래어 목록을 선정하여 선정된 어휘 목록에 대한 북한 대응어와 뜻풀이를 살펴봄으로써 효율적인 어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제 분야의 학술 전문어휘 가운데 외래어 목록을 구성하고 고빈도 어휘 목록을 선정하여 이에 대응하는 북한 대응어를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의 대학 수학에 필요한 경제 분야 학술 전문어휘 가운데 외래어 목록과 북한 대응어 제공이 대학 수학 능력 향상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북한이탈주민,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 경제 분야, 학술 전문어휘, 외래어

I. 들어가는 말

본고는 통일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 수학 시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경제 분야¹⁾ 학술 전문어휘 가운데 외래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설문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학문 목적으로 사용되는 외래어의 학습 현황을 파악한 후, 경제 분야의 학술 전문어휘 가운데 중요 외래어 목록을 선정하여 선정된 어휘 목록에 대한 북한 대응어와 뜻풀이를 살펴봄으로써 효율적인 어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가 맞이할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통일 이후 언어 문제를 고려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함이 마땅함으로 현재 우리 입장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어 연구는 매우

1) 본고는 남한 대학에서 상경계열에 속하는 경제학·경영학 등을 전공하는 학문 목적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학술 전문어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학마다 전공 명칭이 다른 경우가 있어 전체를 아우른다는 의미에서 경제 분야로 표현하고자 한다.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학술 전문어휘 연구는 장차 남북 각 분야의 전문 용어 표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의 경제 분야 학술 전문어휘에 대응하는 북한의 대응어를 살펴보는 것은 남북한 전문 용어의 표준화 작업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될 수 있으며 우선은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전공 공부에 일조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북한이탈주민이 3만 명 이상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북한이탈주민이란²⁾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지칭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1990년까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이 600여명이었으나 김일성 사망과 식량위기가 있던 1990년 중반 이후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고 한다. 통일부 통계 자료³⁾에 의하면 2001년 입국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2017년에는 1,418명에 이르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추이를 보아 앞으로도 그 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들어온 이후 겪는 어려움 가운데 문화적 갈등, 경제적 문제 등도 크지만 언어 문제가 크고, 언어적인 어려움은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서 성공적인 남한 사회 정착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문금현(2007:145)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언어 적응 과정에서 외래어와 한자어에 대한 어려

2) 2018년 3월 30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에서 검색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제정되면서 기존의 '귀순' 개념이 '북이탈'로 바뀌었으며 북한을 떠난 후 아직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을 '북이탈주민'으로 규정하였다고 한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탈북자의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3) 2018년 4월 19일 검색한 통일(<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사이트에 게재된 통계자료에 근거한다.

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외래어 영역에서 이질화가 큰 이유는 북한은 문화어 운동을 통하여 가능한 한 외래어를 ‘다듬은 말’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해 오면서, 러시아어를 차용원으로 하는 외래어를 받아들여 왔는데 반해서 남한은 국어 순화 운동을 통하여 일부 외래어를 고유한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영어를 차용원으로 하는 외래어를 많이 수용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임홍빈 외, 1999:20-24). 여기에 분단이 장기화되고 교류의 단절이 지속되면서 남북 언어 이질화가 확대되어 외래어의 이질화는 더욱 심각해졌다고 할 수 있다.

고경빈(2018:44-49)에서 공개한 ‘2017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⁴⁾에 의하면 본인이 기대하는 교육수준은 ‘대학교(4년제 이상)’가 19.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학(교)(4년제 미만)’이 8.1%, ‘대학원(석사)’이 6.9% 순으로 총 34.7%를 차지하고 있다. 부모의 자녀 기대 교육 수준은 ‘대학교(4년제 이상)’가 65.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학원 박사과정’이 16.8%, ‘대학원 석사과정’이 7.1%로 총 89.6%를 차지하고 있다. 상당한 비율이 대학 이상의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공과 관련된 서적과 강의에서 접하는 학술 전문 어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학문 목적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명선(2012:16)에서는 입국초기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우선 한국어 교육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은

4) 전체에서 대학 이상 진학 희망률을 뺀 65.3% 가운데 본인 기대 교육 수준에 ‘없음’ 응답 비율이 57.3%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문항 응답자가 만 15세 이상 전체이기 때문으로, 전체에서 ‘없음’을 뺀 42.7% 가운데 34.7%가 대학 이상 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자녀 교육 기대 수준은 2016년에 비해 ‘대학교(4년제 이상)’, ‘대학원(박사)’은 각각 5.7%p가 높아지고, ‘대학(4년제 미만)’은 6.6%p가 낮아진 것으로, 남한 사람 대비 ‘대학교(4년제 이상)’는 7.1%p가 낮고, ‘대학원(박사)’은 6.9%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국어 교육의 틀 안에서 설계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남한에서의 정착 초기의 일상생활 적응만이 아니라 대학 수학을 위해서도 필요한 경우라면 한국어 교육적 차원의 접근으로 성공적인 대학 수학 언어 능력을 육성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어휘는 언어의 본질적인 요소인 동시에 언어 학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어휘 연구는 상당 부분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이 생활어휘를 중심으로 한 연구여서 학문 목적 학술 전문어휘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하지만 각각의 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전문어휘에 대한 이해는 성공적인 대학 수학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간과할 수 없다. 학술 전문어휘 가운데는 외국에서 들어온 개념을 외래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남한에서의 경제 분야는 남과 북이 서로 다른 경제체제로 운영되어 상이한 발전 과정을 거쳐 오면서 외래어가 많이 사용되는 분야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경제 분야의 학술 전문어휘 가운데 외래어에 초점을 맞추어 학문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외래어 학습 현황을 살펴본 후 학술 전문어휘 가운데 중요 외래어 목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북한 대응어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언어 실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 후 어휘 학습 교재에 대한 연구와 외래어에 대한 연구, 그리고 외래어 학습

현황에 관한 연구의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언어 실태에 관한 연구로는 정경일 외(2001), 문금현 외(2005)와 문금현 외(2006) 등을 들 수 있다. 정경일(2001)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언어 적응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한 입국 5년 이내의 남녀 북한이탈주민 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적응도와 언어적응도, 어휘적응도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한 결과, 82.1%가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일반어와 외래어는 중간값인 2.5를 훨씬 넘어 상당히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어와 한자는 각각 2.65와 2.7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채팅어는 2.40으로 가장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문금현 외(2005)에서는 3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0개의 어휘항목에 대해 반응 시간 측정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어떤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어떤 어휘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조사 대상이 30명에 그치고 언어 실태 조사가 어휘 테스트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문금현 외(2006)에서는 100명으로 북한이탈주민을 확대하고 어휘 테스트의 대상 어휘를 702개로 늘리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담화 상황에 잘 적응하는지에 대해서도 담화 설문 조사와 심층 면접을 추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문금현 외(2005)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언어 적응을 하는 데에 가장 어려운 점이 남북한의 어휘가 다른 점으로 남한의 어휘에는 한자어와 외래어가 많아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외래어 사용에 대하여는 장경일(2001)의 결과와 다르게 의사소통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문금현 외(2006)에서 보고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어휘 학습 교재에 대한 연구로는 신명선 외(2010)를 들 수 있다. 신명선 외(2010)에서는 남한 정착 기간이 2년 내외인 정착 초기의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어휘 학습 교재를 만들기 위하여 의사소통 상황을 포함한 주제별로 핵심적인 학습 어휘를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어휘를 잘 알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검증단을 구성하여 어휘의 적절성 검토와 북한이탈주민 면담을 통하여 어휘 목록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면담을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의 중요도와 곤란도, 국어 활동 빈도를 조사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의사소통 환경을 분석한 결과 최종 선정된 어휘 1,645개에 대응되는 북한어와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남한 생활에서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선정 어휘의 중요도를 평정한 후 어휘 학습 교재 집필을 위한 지침서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한국어 어휘 학습 교재가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어휘 1, 2, 3』(권순희 외, 2012)이라는 명칭으로 제작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외래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임홍빈 외(1999), 박명수(2013) 등을 들 수 있다. 임홍빈 외(1999)는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 외래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남북 외래어의 차이로 첫째는 남한의 외래어는 영어의 미국식 발음에 대한 편향성을 가지는 반면, 북한의 외래어는 러시아식 발음에 대한 편향성을 지닌다고 하며, 둘째 남한은 외래어 사용에 대하여 특별히 강제성을 행사하지 않는 반면, 북한은 외래어 사용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강제력을 가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셋째는 남북의 외래어 표기는 자음 표기나 모음 표기의 세부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가지는데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남한이 자음의 파열음 표기에서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 북한은 이러한 원칙을 가지지 않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

다. 박명수(2013)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한국어 어휘 학습 교재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어휘 1, 2, 3』(권순희 외, 2012)에 있는 외래어를 중심으로 남한 외래어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북한 대응어를 중심으로 대조를 하였다. 외래어 목록 선정을 위해서는 교재에서 추출된 어휘 가운데 고빈도 외래어를 한국어교육 경험이 있는 한국어 교사에게 인지도·사용도·적합도를 판정받고 북한 대응어 조사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설문을 진행하였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김희진(1999)의 『남북한 외래어의 비교·연구』에서는 1990년대 남한의 『금성관 국어 대사전』(1992)과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1992)에 실린 외래어 표제어를 살펴보고, 이들 사전과 초중고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삼아 의미와 사용 실태의 차이 등을 비교·정리하였다. 남북한 국어사전에서 보인 외래어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남북한 초중고 국어 교과서와 신문·잡지의 고빈도 외래어를 함께 비교한 결과 남한의 경우 초중고 교과서에서는 ‘텔레비전, 스케이트, 버스, 에너지’ 등이, 신문·잡지에서는 ‘팀, 달러, 아파트, 컴퓨터’ 등이 고빈도를 차지하고, 북한의 경우 초중고 교과서에서는 ‘땅크, 툰, 빨찌산, 버스’ 등이 신문·잡지에서는 ‘메터, 유엔, 파썸, 에네르기’ 등이 고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외래어 인식 실태를 조사한 연구로는 정연선(2014) 등을 들 수 있다. 정연선(2014)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외래어 인식과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외래어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정착 2년 이내의 북한이탈주민이 알아야 하는 외래어를 선정하여 교육 방안 원리를 제시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75%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과 북한의 언어차이를 크게 느끼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44%가 많은 외래어 사용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살펴본 논의를 통하여 남과 북의 언어 이질화로 인하여 북한 이탈주민이 정착 초기에 의사소통 장애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한 일상생활 중심의 어휘에 대한 연구는 상당 부분 이루어져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학 수학 능력과 같은 학문 목적의 한국어 필요성에 부응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언어 차이를 가장 많이 느낀다는 외래어 영역을 보면 일상생활 중심의 외래어에 대한 연구는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으나 대학 수학에 필요한 학술 전문어휘 가운데 외래어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었다. 문금현 외(2006:174)에 의하면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남한 사회에 적응하게 되고 남한 어휘도 습득하게 된다고 한다. 거주 기간이 1-2년 사이인 경우 90%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3년 이상인 경우는 97%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어 특별한 어휘 교육 없이도 자연스럽게 남한 사회에 적응하면서 어휘도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휘 습득의 경우이고 학술 전문어휘는 남한 생활의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습득되지 않는다. 한편, 신명진 외(2010:79)에서는 북한과 남한의 가장 큰 차이점이 경제체제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경제체제 적응을 가장 어려워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은행원들이나 증권사 직원들의 설명에 외래어가 많아 여러 번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대학 수학기 접하게 되는 경제 분야 학술 전문어휘 가운데 외래어에 대한 이해도는 더 낮을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남한 대학 과정에서의 성취의 면에서 남한 학생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대학 수학을 위한 효과적인 어휘교육을 위해서는 적절한 어휘 목록 선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명

진 외(2010:13)와 문금현 외(2006:175)에서 언급한 것 같이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들의 필요에 대한 구체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착 초기의 남한 생활 적응이라는 입장에서의 실태 조사가 대부분이었으나 학문 목적과 같이 특수한 목적을 지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통하여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대학 수학이라는 학문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어 학습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 후 경제 분야 학술 전공어휘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외래어를 선정하여 어휘목록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북한 대응어를 제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어휘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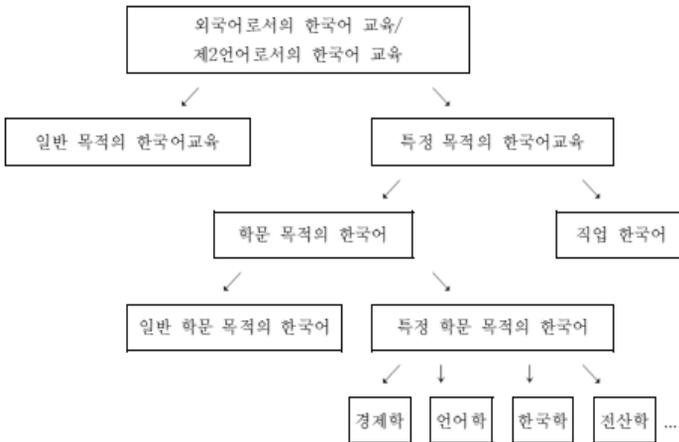
2. 이론적 배경

신명선(2012:16)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우선 한국어 교육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의견을 같이하여 한국어 교육이라는 제2언어 교육의 입장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어휘 학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명선(2006:239-240)에 의하면 한국어 교육적 차원에서 학문 목적을 위한 언어 교육은 학습자들의 요구를 고려한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체계화하려고 한 영어권에서의 특수 목적의 영어 교육(ESP:English for Specific Purpose)과 관련이 깊다. ESP는 학문 목적의 영어 교육(EAP:English for Academic Purpose)과 직업 목적의 영어 교육(EOP:English for occupational Purpose)으로 나눌 수 있고, 학문 목적 EAP는 다시 특수

학문 목적의 영어 교육(ESAP:English for Specific Academic Purpose)과 일반 학문 목적의 영어 교육(EGAP:English for General Academic Purpose)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전자는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며 해당 분야에 관한 학술 논문을 쓰기 위해 영어를 공부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고 있다. 후자는 다양한 학문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영어로 대표적인 예를 학교에서 여러 종류의 과목을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영어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덕희(2004:10)에서는 한국어교육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한국어 교육에서의 학문 목적 한국어(이덕희, 200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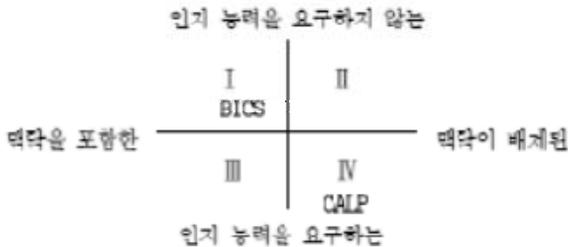


한국의 대학에 입학하여 수학하려는 학습자라면 위의 그림에서의 학문 목적의 한국어(일반 학문 목적의 한국어, 특수 학문 목적의 한국어)와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가 남한

생활 적응을 위한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육 위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영역은 대학 수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목적의 한국어 가운데서도 경제 분야 전공에서의 외래어라는 학술 전문어휘에 관한 것이므로 특수 학문 목적⁵⁾의 한국어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신명선(2006:242-245)에서는 학문 목적 학습자에게 필요한 능력을 BICS(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보다는 CALP(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라고 정의하고, 학생들의 어휘 능력(lexical competence)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상징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⁶⁾.

〈그림 2〉 Cummins(1984)의 언어영역
(신명선(2006:242-245, 재인용))



5) 이덕희(2004:10)의 그림에서 ‘특정’의 경우는 ‘특수’ 등 보다 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 표현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이후 본고에서 언급하는 학문 목적이란 여기에서의 특수 학문 목적을 의미한다.

6) Cummins(1984)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초적 의사소통 기술(BICS: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과 인지 학술적 언어 사용 능력(CALP: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기본적인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지칭하는 ‘문맥내포(context-embedded)’ 의사소통이고 후자는 고도의 인지 작용을 발휘하여 학술적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문맥축소(context-reduced)’ 의사소통이라고 하였다.(신명선(2006:242-243, 재인용))

BICS는 맥락을 포함하고 있어서 CALP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나 CALP는 맥락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도의 인지 능력을 요구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친구들과 낱씨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길거리에 세워진 표지판을 읽는 능력은 전자에 가깝지만 각 학문 분야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교과서를 읽거나 논문을 쓰는 능력은 후자에 가깝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문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들의 학문 활동을 위해서는 후자에 해당하는 맥락을 포함하지 않는 전공 관련 어휘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BICS와 CALP의 분류는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에서 초점을 두어야 할 교육 목표가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육 목표와는 달라져야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BICS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것이라면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의 주목적은 CALP 신장에 있다고 강조하는 것과 같이⁷⁾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학술 전공어휘 학습의 경우도 지금까지의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 생활어휘 중심의 어휘 학습 접근 방법에서 그 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어휘 교육의 목적 역시 구체화하여 일반적으로 어휘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학생들의 어휘 능력(lexical competence) 신장에서 ‘상징 능력’을 개발시키는 어휘 능력⁸⁾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는데 대학 수학 능력 향상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학술 전공어휘

7) BICS 신장에 초점이 있다고 CALP 신장을 전혀 무시하거나 CALP 신장에 초점이 있다고 BICS 신장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나 교육의 주목적이 다르므로 그 교육 내용이나 방법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8) 이 때 상징 능력에 초점을 둔다는 말은 지시 능력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시 능력을 포함하되 상징 능력에 더 비중을 둔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한다.

학습도 상징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때 상징 능력은 주로 단어의 형식과 내용 즉 기표와 기의와의 관계를 탐구하는 능력으로 각 단어가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는 양상을 바탕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맥락과 상관없이 각 단어의 형식과 내용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컨대 ‘책’이라면 가능한 이를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과학적 개념을 찾아야 한다고 한다. 본고에서는 학문 목적 북한이탈주민이 학술 전공어휘의 개념을 알고 다른 단어와의 관계 속에서 각 단어의 의미를 정교화, 체계화시켜 이해하는 고도의 상징 능력을 가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맥락과 상관없어도 각 단어의 형식과 내용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남한의 외래어로 된 학술 전문어휘에 대응하는 북한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뜻풀이를 제공하여 해당 전공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용이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Ⅲ. 학술 전문어휘의 개념과 외래어

북한이탈주민이 대학에서 수학할 때 힘들어하는 부분이 전공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의 이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공에 대한 지식은 어휘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학술 전문어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유미·강현화(2008:9)에서도 학술 전문어휘의 중요성에 대하여 첫째, 전문적 공부에는 어휘적 장벽이 존재하며 그로 인한 대학 집단 구성원과의 동화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성공적인 수학을 위해서는 학술어휘의 개념을 말하고 듣고 읽고 쓸 수 있어야만 한다. 셋째, 어휘는 문식력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어서 전문서적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이

다. 또한 이러한 단어들은 해당 주제 영역 내에서 아주 고빈도로 나타나므로 선행 학습이 필요하다며 학술 전문어휘 능력이 대학 수학에서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학문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 텍스트에 나오는 어휘에 대하여 Nation(1990: 11-27)에서는 기초어휘(basic vocabulary), 전문어(technical vocabulary), 사고도구어(academic vocabulary), 저빈도어라는 네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초어휘는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장 먼저 학습하는 어휘이며, 사고도구어는 특정 학문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에서 폭넓게 나타나는 어휘이고, 전문어는 특정한 학문 분야의 지식을 나타내는 어휘를 말하며, 저빈도어는 자주 접할 수 없는 단어로 구성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신명선(2006: 246-248)에서는 저빈도어는 말 그대로 자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기초어휘, 전문어, 사고도구어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여기에서의 기초어휘가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육의 대상이 된다고 할 때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대학에서 전공 수학을 위한 학문 목적의 한국어의 대상이 되는 어휘는 전문어와 사고도구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일반 학문 목적의 한국어라면 사고도구어가 주로 어휘 교육의 대상이 되겠지만 특수 학문 목적의 한국어라면 주로 전문어가 어휘 교육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고도구어와 전문어의 경계는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⁹⁾. 이와 관련하여 Nation(2001:198-199)¹⁰⁾에서는 어떤 단어가 특별한 영역에 얼마나 의존하느냐하는 ‘전문성(technicalness)’의 정도에 따라 아래에서의 범주 1과 2만 전문어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9) 전문용어 안의 경계는 아니지만 김한샘(2015:132)에서는 전문용어와 일반어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전문용어와 일반어도 넘나들이 자연스럽게 필수적이라고 한다.

10) 번역은 신명선(2006:251-252)에서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1)범주1: 특별한 학문 분야(field) 외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

범: jactitation, per curiam, cloture(의회의 토론종결)

응용 언어학: morpheme, lemma

범주2: 특별한 분야(field)에서도 나타나고 그 외 분야에서도 나타나는데, 양쪽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가 다름.

범: cite(인용하다/ 소환하다(법)), caution(조심/경고하다(법))

응용 언어학: sense, reference, type, token

범주3: 특별한 분야(field)에서도 나타나고 그 외의 분야에서도 나타남.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어떤 학문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의미는 일상 언어 사용의 예를 통해 추론할 수 있음.

범: accused(in), offer

응용 언어학: range, frequency

범주4: 학문 분야에서 잘 나타나기는 함. 섬세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의 특수성은 거의 없음.

범: judge, mortgage

응용 언어학: word, meaning

이는 Nation(2001:198-199)과 신명선(2006: 246-248)에서의 전문어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김유미·강현화(2008:8)에서 학술 전문어휘로 부르고, 해당 학문 분야의 지식의 응결체인 학문어라고 보는 것과 같은 견해이다. 본고에서도 이와 입장을 같이하여 김유미·강현화(2008:8)에서의 명칭이 대학 수학에 중점을 둔 어휘 학습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더 알기 쉽다고 판단해 북한이탈주민이 대학에서 전공 수학에 필요한 어휘를 학술 전문어휘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¹¹⁾.

11) 이에 대하여 심혜령·황성은(2012:164)에서는 특정 학문의 수학을 위한 어휘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어휘를 일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학문

북한이탈주민이 대학 수학 시 접하게 되는 학술 전문어휘는 개별 전공 분야에서 필요한 개념을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외국에서 만들어진 개념은 외래어로 차용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경제 분야 학술 전문어휘는 서구에서 발전된 경제체제에서 만들어진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서 외래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의 남한에 와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외래어가 많이 어려웠다는 보고로 미루어보아 대학 수학기 접하게 되는 전공 분야 외래어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외래어의 정의에 대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희원(2004:20)에서는 특정한 어휘가 외국어인지 외래어인지, 또는 차용어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서 외래어라는 용어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일치시켜 정의하려면 국어로 굳어진 낱말뿐만 아니라 동화 과정에 있는 외래 어휘들까지 포함해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한다. 외래어, 차용어, 귀화어는 모두 외국어에서 와서 국어 속에 널리 사용되는 어휘로 그 중에 국어에 완전히 동화되고, 또 일반인들에게 외국어에서 온 말이라는 의식이 없이 고유어와 똑같이 취급되는 어휘는 귀화어, 일반 언중이 외래 어휘임을 인식하는 나머지 어휘는 외래어, 동화 과정이 완료되어 국어의 어휘 체계 속에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말은 차용어라는 말로 구분해서 지시할 수 있다고 한다. 임홍빈(2008:28)에서는 외래어를 국어에 들어온 말이라고 할 때 외래어에는 국어에 들어온 지 오래되어 외래어의 의식이 없어지거나 약화된 귀화어도 있고, 아직 외래어 의식이 비교적 강하

에 등장하는 학술 전문어휘를 영역별로 나누어 놓고 한국어 교육에서 교육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게 남아 있는 예도 있고, 이제 막 우리말에 들어와서 외래어 의식이 아주 강한 외래어도 있지만, 한글로 적히거나 한글 자모로 대표되는 국어 음운으로 발음되면, 그것은 이미 외래어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외래어 정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 가운데 본고에서는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서 외래어가 사용되고 있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외래어의 정의를 외국에서 들어 온 말이라고 언중이 인식하는 어휘 가운데 국어의 음운으로 발음되는 범위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IV. 학술 전문어휘 학습 현황 조사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학문 목적 북한이탈주민이 대학 수학을 접하는 학술 전문어휘에 대한 학습 현황을 파악하고자 2018년 4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은 남한의 대학에 재학 중인 10명¹²⁾으로 배경 변인으로 성별, 전공, 나이, 입국시기 등을 파악하고 전공 공부와 관련된 학문 목적의 학술 전문어휘 학습 현황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 파악이 가능하도록 선택형 질문과 기술식 질문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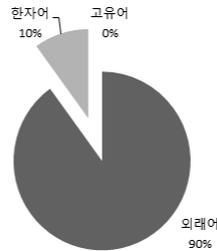
설문 대상은 남자 5명, 여자 5명으로 대학원생이 1명, 대학 4학년이 4명, 3학년이 3명, 2학년이 1명, 1학년이 1명이었다. 전공은 경제 분야가 3명, 정치외교학이 1명, 문화인류학이 1명, 체육교육학이 1명, 북한학이 1명, 동물자원학이 1명, 기계공학이 1명, 사회문화언론학이 1명이었다. 입국 시기

12) 10명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주변에 있는 남한 대학에서 수학 중인 북한이탈주민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다. 특히 경제 분야 전공자를 만난다는 것이 어려워서 다른 분야의 전공자도 각자의 전공 속에서 학술 전문어휘를 학습해야 하는 입장은 비슷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설문 대상에 포함하였다.

는 대체적으로 2005년에서 2014년으로 남한 거주 기간이 최저 4년, 최고 13년으로 평균 6.6년이였다. 나이는 27세 이상이 8명이고 21세가 1명, 22세가 1명이였다. 설문지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이 백분율로 표시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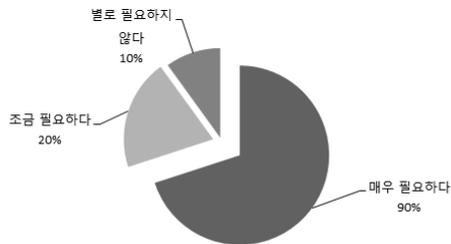
전공 공부 시 접하는 어휘가 <그림 3> 전공 공부 시 어떤 종류의 어휘가 운데 많다고 느끼는 어휘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 외래어가 90%, 한자어가 10%라고 응답하였고 고유어라고 응답한 예는 보이지 않았다. 경제 분야 전공자는 3명이였고 그 외는 다른 전공이었음에도 외래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많다고 생각하는가?



대학 입학 전 전공 관련 한국어 공부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70%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0%는 조금 필요하며, 10%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1명을 제외하고 '조금'이라고 필요하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그림 4> 입학 전 전공 관련 한국어 공부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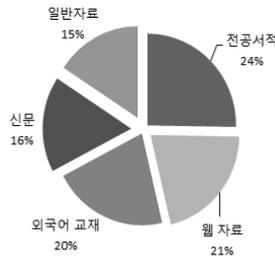


보아 대학 수학 과정에서 입학 전 전공 관련 한국어 공부의 필요성을 느낄 만큼 공부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입학 전 어떤 한

국어 공부가 필요한 지를 묻는 기술식 질문에는 전공 공부와 외래어 공부라는 응답이 많았고 외국어 공부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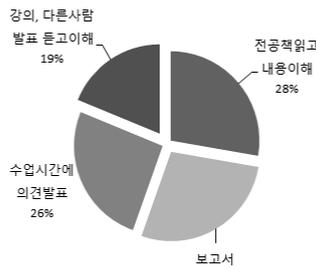
대학 수학 시 접하게 되는 읽기 자료에는 어떠한 종류가 많은지 질문하였다. 24%는 전공 서적, 21%는 웹에 있는 자료, 20%는 외국어로 된 교재, 16%는 신문, 15%는 일반 자료라고 응답하였다. 최근 전공 관련 다양한 정보가 웹에 실려 있는 것을 생각하면 전공과 관련된 서적과 웹에 있는 자료를 상대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림 5〉 대학 수학 시 많이 읽는 자료



전공 관련하여 어려운 영역을 묻는 질문에는 전공 책을 읽고 내용 이해하기와 보고서 쓰기라고 28%가 각각 응답하였고, 26%는 수업시간에 자신의 의견 발표하기, 19%는 강의나 다른 사람 발표를 듣고 이해하기라고 응답하였다. 상대적으로 읽기와 쓰기를 다른 영역보다 어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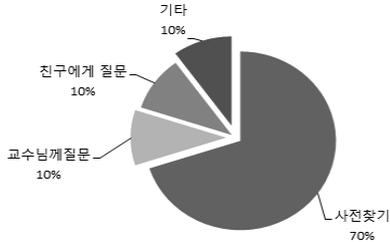
〈그림 6〉 어려운 영역



전공 관련 공부 시 어려운 내용을 접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질문하였다. 사전 찾기를 70%, 교수님께 질문을 10%, 친구에게 묻기를 10%, 기

타를 10%로 응답하였다. 기타는 네이버 사전 검색을 응답한 것이어서 이를 감안하면 많은 비율이 사전을 통하여 모르는 학술 전문어휘를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 전공 공부 방법



그리고 전공에 나오는 학술 전문어휘가 어려운 이유를 묻는 기술식 질문에서는 생소하고, 외래어와 영어가 많고, 전공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학술 전문어휘 가운데 특히 외래어가 어려운 이유를 묻는 기술식 질문에서는 우선 낯설고 외래어를 배운지 얼마 안 되었고, 그 양이 많고, 모르는 외래어가 나올 때 의미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학문 목적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학술 전문어휘 학습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공 서적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때 필수적인 학술 전문어휘를 어려워하고 특히 외래어를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대학 수학 시 전공에서 접하게 되는 수많은 외래어를 성공적으로 학습하기 원한다면 전공에 필요한 중요 외래어 목록을 선정할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대학에서 수학할 정도의 북한이탈주민은 기본적인 한국어 언어 능력은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학술 전문어휘가 나왔을 때 사전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외래어로 된 학술 전문어휘에 해당하는 북한 대응어와 뜻풀이를 제시하여 사전처럼 필요할 때 참고할 수 있게 한다면 유용한 어휘학습이 될 것이다.

V. 학술 전문어휘의 선정 및 복한 대응어

1. 학술 전문어휘 선정 방법

학술 전문어휘 가운데 중요 외래어를 선정하여 목록을 작성하고자 이에 대한 빈도조사를 구글 사이트를 통하여 실시한 후 빈도 조사 상위 어휘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의 중요도 판정을 실시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신뢰할 만한 경제 분야의 외래어로 된 학술 전문어휘를 얻기 위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경제 분야 전문어 가운데 외래어 표제어를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연구 목적에 따라 어떤 텍스트를 선정할지 텍스트의 종류의 구성 비율 등은 어떻게 할지를 정하여 말뭉치를 구축하거나 기존에 구축된 말뭉치를 이용하는데, 본고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있는 경제 분야의 외래어로 된 전문어 표제어를 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기존 사전에 수록된 외래어를 망라하고 있고 어문 규정의 기본 원칙에 따른 외래어 표준 표기를 제공해 주고 있어서¹³⁾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전문어 앞에는 전문 분야를 표시하는 기호가 들어가 있어서 경제 분야라면 ‘경제’라는 전문어 영역 표시가 풀이말 앞에 온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표제어가 일반어

13) 조남호(2000:5-23)에 의하면 1992년에 사전 편찬을 시작하여 1999년 11월 말에 3권으로 된 『표준국어대사전』을 완간하였다고 한다. 본문만 7,128면이며 표준어를 비롯하여 복한어 등 모두 50만 단어를 수록하고 있다. 처음에는 기존 사전 12종을 대상으로 삼았으나 최종적으로 남북한의 대표적인 사전 6종으로 국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고 한다. 집필은 국어국문학 전공한 박사 과정 수료 이상의 원외 사람에게 의뢰하고 나중에는 현직에 있는 대학 교수 등으로 범위를 넓혀 갔다고 한다. 전문어는 전문 영역별로 나누어 집필 시 정리한 집필 분류 항목과 해당 항목에 대한 기존 사전 카드, 그리고 해당 영역 전문어 사전을 제공하여 국어국문학전공자에게 집필을 의뢰한 후 집필이 끝난 후 해당 영역 전문가의 감수를 받았다고 한다.

로도 전문어로도 쓰일 수도 있어서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첫 번째 뜻풀이는 ‘슬럼프’의 일반적인 뜻을 두 번째 뜻풀이는 경제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적인 의미를 나타내는데 ‘경제’라는 전문어 영역 표시가 있는 모든 표제어를 대상으로 하였다¹⁴⁾.

(2)슬럼프 (slump) 『명사』 「1」운동 경기 따위에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저조한 상태가 길게 계속되는 일. ‘부진01’, ‘침체’로 순화. 『슬럼프에 빠지다/슬럼프에서 벗어나다. 「2」『경제』경기(景氣)가 향상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현상.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전문어로 사용된 표제어는 전체 표제어의 42.5%에 이르고, 전문어는 53개의 전문 분야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경제 분야의 주표제어는 8,542개로 외래어만 추출하니 1,075개가 되었다. 1,075개 가운데 규범의 차이로 인해 북한어로 오른 표제어에 아래와 같이 “대응하는 남한어”의 북한어로 뜻풀이가 되어 있는 11개는 대응하는 남한어가 있어서 제외하였다¹⁵⁾.

14) 국립국어연구원(2000:47-51)에 의하면 외래어는 자립 형식만을 표제어로 수록하고 어근이나 접사에 해당하는 형태,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표기, 외래어 어근, 외래어 복수 형태 등은 표제어로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전문어는 전문 영역에 따라 관용으로 인정한 표기가 다른 경우 각 표제어를 모두 등재하고, 외래어나 외래어를 포함하는 구성으로서 한두 사전에만 등재되어 있고 현재는 쓰이지 않으며 전문어 사전에서 확인되지 않는 표제어는 삭제하는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15) 이운영(2002:40-44)에 의하면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북한어가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는데 『조선말대사전』(1992, 사회과학원)에 수록된 표제어 중에서 남한 국어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어휘들을 중심으로 수록했으나 표제어가 새로운 의미가 없는 단순한 단어의 결합 형태인 경우나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는 등의 내용은 남한 국어사전에 없는 어휘라 하더라도 표제어로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선별 작업을 통하여 올린 북한어 표제어는 『표준국어대사전』 전체 표제어의 14.1%에 해당한다고 한다.

(3)데플레이션 (deflation) 『명사』 『북한어』 『경제』 『디플레이션』의 북한어.

한편, 어휘 학습에 필요한 어휘 선정 방법에는 객관적인 방법과 주관적인 방법, 그리고 절충적인 방법이 있다고 한다. 객관적인 방법은 자료에 있는 어휘 빈도와 분포를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어휘가 고빈도로 나타날 수 있고 중요한 어휘가 저빈도로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주관적인 방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선정하는 방법으로 빈도에 의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인한 단점은 피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전문가의 주관에 따라 어휘 선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임지룡(1991:101-105)에서는 언어자료에 따라 객관적으로 선정된 어휘를 두고 주관적 판단으로 수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어휘 선정에 이르는 절충적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절충적 방법은 선정자의 편견이 문제시되는 주관적인 방법과 빈도수 조사에서 무한한 언어자료를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없고 특정한 낱말의 빈도치가 조사 대상의 자료와 범위에 따라 진폭을 달리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객관적 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한다고 한다. 절충적 방법은 이와 같이 객관적 방법과 주관적 방법이 각각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되는 어휘 선정법의 하나이므로 본고에서는 이에 따라 학술 전문어휘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은 인터넷 웹 검색 사이트 구글 한국판(<http://www.google.co.kr/>)에서 위에서 수집한 어휘가 실제 어느 정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빈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 모르는 내용을 인터넷 웹을 통해 검색하는 것이 일상화된 경향이 있는데 특히 구글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강재욱(2011:14, 47)에 의하면 기존의 검

이 가운데 전문어는 전체 북한어의 47.65%를 차지한다고 한다.

색 엔진들이 특정 단어가 얼마나 많이 출현하느냐로 검색의 순위를 매겼다면 구글은 ‘특정한 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링크를 통해 연결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사람들로 부터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신뢰받는 사이트를 먼저 보여 줌으로써 검색 결과 자체에 신뢰를 준다고 한다. 그리고 단순히 검색어를 집어넣고 검색된 결과 중에서 원하는 정보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범위를 좁혀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원하는 정보에 더욱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보다 정확한 검색을 위하여 경제와 관련된 웹 문서를 검색하기 위한 키워드를 넣고, 여기에 검색하고자 하는 해당 어휘를 큰따옴표로 묶어서 검색하였다. 그 결과 아래에서와 같이 고빈도순으로 배열된 외래어 목록을 얻을 수 있었다. 빈도 조사 결과 ‘풀평준제’와 같이 1개부터 ‘마크’와 같이 15,100,100개나 되는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빈도로 나온 어휘는 제외하였다.

이어서 빈도만으로 어휘를 선정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경제 분야를 전공한 대학 교수, 대학 강사, 대학원생 각각 1명에게 경제 분야의 학술 전문어휘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중요도 판정을 받았다. 전문가 판정을 의뢰할 때 경제 분야를 전공으로 할 때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3점, 상대적으로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2점, 그 다음은 1점이라는 식으로 중요도를 판정하도록 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어휘는 삭제를 요구하였

〈표 1〉 고빈도순 경제분야 외래어 학술 전문어휘 목록의 일부

번호	표제어	품사	원어	구글빈도수
1	마크	명사	mark	15,100,000
2	마케팅	명사	marketing	14,200,000
3	옵션	명사	option	14,100,000
4	쿠폰	명사	coupon	10,700,000
5	팁	명사	tip	7,320,000
6	컨설팅	명사	consulting	5,470,000
7	코스닥	명사	KOSDAQ	4,820,000
8	재테크	명사	財tech	4,150,000
9	재정인플레이션	품사없음	財政inflation	4,150,000
10	노하우	명사	knowhow	3,700,000

으나 실제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빈도 조사를 거친 고빈도 어휘 목록이므로 삭제를 요구하는 어휘는 없었다. 다의어의 경우는 각각의 의미별로 중요도 판정을 의뢰하였다. 어휘의 중요도 판정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차이가 있었으나 판정 결과값이 5이상인 어휘와 합계가 4인 경우 3인중 1명이라도 가장 중요하다고 판정한 단어를 중심으로 선별하였다. 이렇게 해서 선별된 어휘가 총 142개로 우선적으로 학습되어야 할 중요 어휘 목록이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36개는 북한 대응어와 뜻풀이 작업¹⁶⁾이 이루어져 있어서 이를 제외한 106개의 어휘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고학력의 경제학 전공 교수 1명, 북한학 전공 교수 1명, 경제학 대학원생 2명에게 북한 대응어와 뜻풀이를 확인하였다. 선정된 어휘 목록에 대한 남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미를 제시하고 서로 협의를 통하여 이에 대한 북한 대응어를 찾고 뜻풀이를 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2. 어휘 목록과 북한 대응어 및 뜻풀이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총 142개의 어휘를 학문 목적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경제 분야의 학술 전문어휘 가운데 주요 외래어 어휘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었다¹⁷⁾.

북한 대응어 및 뜻풀이 작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점에 주의하였다. 첫째는 북한 대응어 및 뜻풀이 작업을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화어와

16) 제일기획과 드림터치포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제작한 글동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용어, 신어 등을 대상으로 남한어를 북한어로 바꾸어 주고 있었다. 본고에서 선정한 어휘목록 가운데 마케팅, 컨설팅, 홈쇼핑 등과 같은 어휘는 일상생활에서 일상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이미 글동무에 실려 있었다. 이에 따라 말동무 있는 어휘와 선정한 어휘목록에서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17) 지면상 구체적인 어휘목록은 부록에 게재하였다.

지역 방언 간에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현재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출신을 보면 매우 다양해서¹⁸⁾ 특정 언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사고작용을 통해 여과되어 산출된 쉬운 남한어로 작업하는 것이 외래어 개념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남한 대학에서의 수학에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둘째는 가능하면 선정할 어휘목록에 해당하는 북한 대응어를 찾고, 없는 경우는 대체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어휘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어휘 목록에 있는 품사가 명사이면 북한 대응어도 명사로 표현하고 뜻풀이에서도 간단명료하면서 북한 대응어의 품사에 맞추어 풀이하였다¹⁹⁾.

신명선(2010:10)에서의 분류에 따라 남북한 어휘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고려하여 어휘를 분류해 보면,²⁰⁾ 선정된 142개의 어휘 목록에서 『조선말

18) 2017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2018:41)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출신지역은 ‘함경북도’가 64.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양강도’(14.1%), ‘함경남도’(8.9%) 등으로 이어지는데 지방에서는 문화어보다는 지역 방언이 많이 사용된다고 한다.

19) 아래에 있는 Zgusta(1971:257-258)에서 제시한 뜻풀이의 일반적인 원칙을 가능한 한 적용하고자 하였다.

- ① 뜻풀이에 있는 모든 단어는 설명되어야 한다.
- ② 사전적 뜻풀이는 뜻풀이에 사용되는 단어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넣어서는 안 된다.
- ③ 뜻풀이에 사용되는 말이 그 뜻풀이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독립하여 뜻풀이가 되지 않는 한 뜻풀이에 사용되는 단어의 파생어나 복합어도 함께 그 뜻풀이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④ 뜻풀이는 뜻풀이되는 말의 품사에 대응해야 한다.

20) 신명선(2010:10)에서의 분류에 따라 ①동형의어: ‘조선말대사전’ 문헌, 면담에서 해당 표제어의 남북한 간 의미 차이가 보고된 어휘. ②이형동의어: ‘조선말대사전’ 문헌, 면담에서 해당 표제어의 북한 대응어가 보고된 어휘. ③동형동의어: 해당 표제어가 ‘조선말대사전’에 같은 의미로 등재되어 있는 어휘. ④남한 특수어: 해당 표제어가 ‘조선말대사전’에 없는 어휘로서 북한 대응어가 문헌이나 면담에서 보고되지 않은 어휘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선정한 주요 외래어 대부분이 북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남한특수어가 대부분이었고 동형의어의 예는 찾아보

대사전』에 게재되어 있는 11개 어휘 가운데 북한 대응어와 동형동의어인 경우는 6개 있었다. 이는 ‘카드, 월가, 유로’에 표기의 차이에 의한 3개의 어휘(펀드(남):폰드(북), 경제블럭(남):경제빨럭(북), 통화블럭(남):통화빨럭(북))를 포함시킨 결과이다. 형태가 다르지만 같은 의미의 이형동의어인 경우는 5개로 ‘이노베이션(남):기술혁신(북), 커미션(남):수수료(북), 크라이시스(남):경제위기(북), 엔아이(남):국민소득(북), 바터(남):물물교환(북)’이 여기에 해당한다.

〈표 2〉 학문 목적 경제 분야 주요 외래어 학술 전문어휘와
북한 대응어 목록 (동형동의어와 이형동의어)

순위	외래어	원어	북한대응어
18	카드	card	카드
27	월가	Wall街	월가
133	유로	Euro	유로
4	펀드	fund	폰드
29	이노베이션	innovation	기술혁신
62	커미션	commission	수수료
83	크라이시스	crisis	경제위기
86	경제블록	經濟bloc	경제빨럭
87	통화블록	通貨block	통화빨럭
92	엔아이	NI	국민소득
107	바터	barter	물물 교환

이와 같이 동형동의어로 북한에 대응어가 존재하는 경우의 어종을 보면 외래어가 4개 혼종어가 2개로 나타났다. 조어구조를 살펴보면 외래어 단일어로만 구성된 예와 혼종어로 ‘외래어+한자어(접미사)’의 파생어와 ‘한자어(단일어)와 외래어’로 구성된 합성어의 예가 있었다.

〈표 3〉 남북 동형동어의 조어 구조(단위:개)

조어 구조	남	북
외래어	4	4
외래어+한자어(접미사)	1	1
한자어(단일어)+외래어	1	1
합계	6	6

이형동어에서의 조어 구조를 보면 남한의 경우 어종은 외래어 단일어로 사용된 것이 4개이고 영어 문자의 두문자로 사용된 것이 1개이었다. 북한의 경우 어종은 한자어로 조어구조는 ‘한자어(단일어)+한자어(접미사)’의 파생어로 사용된 예가 1개, ‘한자어(단일어)+한자어(단일어)’의 합성어로 사용된 예가 4개이었다. 특징적인 점으로는 외래어가 한자어로 대체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표 4〉 남북 이형동어의 조어 구조(단위:개)

조어 구조	남	조어 구조	북
외래어	3	한자어(단일어)+한자어(단일어)	3
외래어	1	한자어(단일어)+한자어(접미사)	1
두문자	1	한자어(단일어)+한자어(단일어)	1
합계	5	합계	5

VII. 나가는 말

본고는 학문 목적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경제 분야 학술 전문어휘 가운데 외래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설문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학문 목적으로 사용되는 외래어 학습 현황을 살펴본 후, 경제 분야의 학술 전문어휘 가운데 중요 외래어 목록을 선정하여 어휘 목록에 대한 북한 대응어와 뜻을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학술 전문어휘 학습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학 수학 시 접하는 어휘 가운데 외래어가 많다고 느끼고 전공 관련해서 어려운 어휘를 접했을 때 사전 찾기를 통하여 의미를 확인하는 것의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술 전문어휘 가운데 중요 외래어를 선정과 목록 작성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빈도조사를 구글 사이트를 통하여 실시한 후 빈도 조사 상위 어휘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의 중요도 판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142개의 어휘를 학문 목적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경제 분야의 학술 전문어휘 가운데 주요 외래어 어휘목록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북한 대응어를 제시하고, 뜻풀이를 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학술 전문어휘의 학습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학문 목적의 북한이탈주민에게 요구되는 언어 기능을 파악함으로써 어휘 교육이나 교재 개발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 이탈주민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 수가 적어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주요 경제 분야 학술 전문어휘 가운데 외래어를 선정한 남북한 외래어 대응 목록 및 뜻풀이에 대한 결과는 학술 전문어휘 학습과정을 용이하게 하거나 시간 단축을 도모할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외래어 어휘 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 2000, pp.47-51.
- 강재욱 외, 『Google 구글 완전 활용법』, 이지스퍼블리싱, 2011, pp.4-47.
- 고경빈, 『2017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8, pp.41-49.
- 김한샘, 『전문용어의 일반어화에 대한 소고』, 『韓民族語文學』 71, 2015, pp.129-154.
- 김희진, 『남북한 외래어의 비교·연구 - 국어사전과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 국립국어연구원, 1995, pp.1-499.
- 문금현 외, 『새터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실태 연구』, 국립국어원, 2005, pp.1-192.
- 문금현 외, 『새터민 언어실태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2006, pp.1-282.
- 문금현, 『새터민의 어휘 및 화용 표현 교육 방안』, 『새국어교육』 제76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7, pp.141-172.
- 박명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남북한 외래어 대조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2013, pp.1-160.
- 신명선, 『학문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육의 내용 연구』, 『한국어교육』 17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6, pp.237-264.
- 신명선, 『새터민 어휘 학습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2010, pp.1-290.
- 신명선, 『새터민 어휘 학습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의 어휘 조사결과』, 2010, 국립국어원, 2010, p.10.
- 신명선, 『새터민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박이정, 2012, p.6.
- 심혜령·황성은,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학술어휘 교육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2, pp.162-172.
- 이덕희, 『요구 분석을 통한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2003, pp.1-97.
- 이운영, 『표준국어대사전' 연구 분석』, 국립국어연구원, 2002, pp.40-44.
- 임지룡, 『국어의 기초어휘에 대한 연구』, 『국어 교육 연구』 23, 국어교육회, 1991, pp.87-132.
- 임홍빈 외, 『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 외래어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1999, pp.1-368.
- 임홍빈,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의 문제』, 『새국어생활』, 제18권 4호, 국어연구원, 2008, pp.5-32.
- 정경일 외, 『남한정착 북한출신 주민의 언어적응 실태 조사연구』, 문화관광부, 2001,

pp.1-255.

정연선, 『새터민을 위한 외래어 교육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pp.1-9.

정희원,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 국립국어연구원, 2004,
pp.5-22.

조남호,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경과』,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 국립국어연구원,
2004, pp.5-23.

최혜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특징』, 『새국어생활』 제10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pp.25-40.

Nation, I. S. P., *Teaching & Learning Vocabulary*, Heinle & Heinle Publishers,
1990, pp.11-27.

Nation, I. S. P.,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p.198-199.

Zgusta, L. *Manuals of Lexicography*, The Hague, Mouton Prague, Academia,
1971, pp.257-258.

<인터넷 사이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사이트 <http://korean.go.kr>

통일부 사이트 <http://www.unikorea.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인터넷 구글 웹 한국어판 <http://www.google.co.kr>

Abstract

A Study on Academic loan words of Korean
for the specific academic purpose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Economic department

Kim, Joo-youn

This article is intended to study loanwords used in the academic vocabulary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major in economic fields in South Korean universit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academic loan words which North Korean defectors feel are the most difficult to understand in their fields of study.

Through questionnaires, we considered the status of learning loan words that are used for academic purposes by North Korean defectors.

This study defines words that are part of academic vocabularies and also constructs vocabulary lists that are relevant to the economic and academic fields in order to determine which words are used most frequently.

We provide basic data that can be used for effective vocabulary education by examining both the North Korean vocabulary and the meaning of the words on the selected vocabulary list. The list includes important loan words used in academics, focusing on words used within academics, and particularly within the economic fields.

The purpose of this study will help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 in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providing a list of essential academic loan words.

Key Word: North Korean defectors, Economic fields, KSAP(Korean for specific academic purpose), Academic technical vocabulary, Loan words

김주연

소속 :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전자우편 : saranate@hanmail.net

이 논문은 2018년 5월 10일 투고되어
2018년 6월 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8년 6월 7일 게재 확정됨.